'환경과 생명윤리' 韓日학술교류회의

"환경보존 주역은 인간의 마음"

각종의 환경문제와 자살 낙태 안락사 뇌사 장기이식 등 새로운 생명윤리문제에 불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동국대와 일본 大正대학은 지난 10월27일 동국대에서 '환경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8회 한·일 학술교류회의를 가졌다. 동국대 정태섭교수의 사회와 홍윤식교수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학술회의에는 양국에서 3명의 발표자가 각각 나서 현대사회의 환경 및 생명문제를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그 대처방안을 모색했다.

◇환경·생명윤리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응을 모색한 제8회 한·일학술교류회의.

법산스님 자연과 인간 공생관계 '不二사상' 강조

장기매매방지법·호스피스운동 제창 석상선응교수

'불교에 있어서의 환경과 생명윤리'를 발표한 법산스님(동국대교수)은 "우리가 먹고(地) 마시고(水) 체온을 유지하며(火) 숨쉬고(風) 사는 것은 천지자연과 목숨을 같이 하는 신토불이(身土不二)이다"며 "불교의 무아·불이(不二)사상은 시방삼세(十方三世)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이 나와 더불어 둘이 아니므로 편견과 집착을 버리고 상의상존의 원융무애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극락정토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산스님은 "중생이 몸담고 있는 우주자연인 의보(依報)와 작업의 주체인 중생, 즉 정보(正報)가 '불이'이므로 자연이 곧 자신이며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닌 색심불이(色心不二)의 관계를 밝혀 인간의 마음이 환경보존의 주역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불교학회의 대응과 고생(苦生)사상'을 발표한 대정대 石上善應교수는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일본인도학불교학회와 생명윤리위원회의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일본인도학불교학회는 △뇌사 장기이식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생명존중을 기본적인 시각으로 두고 결정할 것과 △보시의 숭고한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장기이식을 위해 장기매매등을 방지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임종환자를 위한 불교호스피스(hospice)운동등 불교신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생명윤리와 불교'를 발표한 대정대 田中雅博교수는 일본 보문원(普門院)진료소의 환자 6백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당신이 뇌사상태로 된다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가'란 질문에 75%가 '치료를 중지하길 바란다', 16%가 '심장이 뛰는한 치료해 달라', 5%가 기타로 나타났다. 또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하길 원하는가'란 질문에는 50%가 '그렇다', 41%가 '그렇지 않다'로 나타났다.

김재경 기자

"이능화, 거사불교운동 틀다졌다"

이재헌씨 '일제하…'서 주장

일제하 불교계의 대표적 학자였던 이능화(李能和: 1869~1943)를 중심으로 당시 지식인들의 역사인식을 조명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논문은 여의도 중학교 교사인 이재헌씨(정신문화연구원 박사과정수료)가 지난 10월20일 정문연 한국학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일제하 불교지식인들의 역사인식과 대응양상에 관한 연구'가 그것. 이씨는 "그간 친일단체로 알려진 불교진흥회(1914~1917)의 〈불교진흥회월보〉 편집·발행인으로 활약하며 거사불교의 이념적 기초를 세웠던 인물이 이능화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불교진흥회는 1917년 해체되어 이완용 권중현 등의 불교옹호회로 넘어가면서 더욱 친일의 성격이 강해지자 자발적인 민간단체인 조선불교회를 조직, 거사불교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일제침략 이래 불교계의 대응을 △전통불교를 수호하던 선승들(신혜월 방한암 송만공 등) △총독부와 타협한 사찰령 이후의 본산(本山) 주지들 △불교계의 자각과 개혁을 통해 항거한 세력들(한용운 백용성) △중간자적 입장의 불교학자들(이능화 권상로 박한영 김영수 등) 등으로 파악했다.

◇11월中 불교학술발표회 일정

주 최	주 제	때	곳	연락처
통도사	불교와 환경	11.1	통도사설법전	(0523)82-7182
한국불교학회	자유발표	11.4	동국대	(02)260-3122
한국종교학회	한국종교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11.4	이화여대	(02)705-8348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	조선초 불가문화의 동향과 의미	11.10	동국대명진관	(02)260-3145
한국불교연구원	동서양 고전에 나타난 道	11.18	타워호텔	(02)3411-6167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조선시대 불교사의 새로운 이해 Ⅰ	11월중순	중앙승가대 정진관	(02)260-3385
회당학회	자유발표	11월말	대구심인당	(02)942-8345
한국종교교육학회	미정	11월말	미정	(02)275-2607

지난 10월21~22일 송광사 사자루에서는 '한국선의 원류-나말려초 구산선문(九山禪門)' 주제의 보조사상연구원 제8회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조계종의 기원과 전개'를 발표한 허흥식교수(정신문화연구원)가 그간 독자적으로 주장해 온 나옹(懶翁)법통설과 14산문설을 다시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송광사 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제8차 학술회의.

보조사상연 학술회의

허교수는 "불교학계의 다수설인 태고법통설은 14·5세기의 현실과 다른 조선후기에 비롯된 견해"라면서, "조선전기에는 나옹의 법손이 불교계를 주도했으나, 조선후기에 등장한 태고법손을 자처한 고승들이 불교계를 이끌면서 오늘날까지 통설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옹법통설은 임란후인 1610년대까지 존속했지만 청허휴정의 소장문도에 의해 태고법통설이 부각되면서 미미해졌다는 것이다.

허교수는 또 "고려중기 이후에야 9산문설이 확립되었다"고 밝혔다. 허교수는 "9세기 후반에 최치원이 왕명으로 쓴 '봉암사 지증대사비'에는 지증대사가 속한 희양산문을 제외하고도 13산문과 그 조사 법명(法名)의 끝글자를 첨가해 3자씩 수록했다"며 "이 비문은 893년에 쓰여졌으므로 9세기말에 적어도 14산문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나옹법통설과 관련, 김영태교수(동국대)는 "현행 승가의 〈예송의범〉에 나옹이 3화상청(和尙請)을 비롯 불사작법(佛事作法)의 증명법사및 조사로 받들여지고 있으며, 〈동국승니록〉등에 태고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나옹은 상당한 비중으로 수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후세에 태고법통설이 우세를 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선이 전통적으로 임제종을 으뜸으로 여기는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조계종 나옹법통설

조선 중엽까지 통설

허홍식교수 '태고설' 16세기 지나 등장…9산문 고려중기 확립

"주인공'이 대상으로 연상되는데…

문 '주인공'에 대해 다시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님께서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말고 그 자리에 몽땅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자꾸만 어떤 대상, '아트만' 같은 것을 연상케 됩니다. 가르침 바랍니다.

〈유양호·서울 서초구 우면동〉

답 전에도 같은 질문에 대답을 했었는데〈35호 참조〉 아직도 이해가 안되신 모양이군요. 하긴 이해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주인공이란 말은 그냥 이름이니 달리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주인공이란 언어와 명상(名相)을 초월한 것이요,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처사님께서는 주인공이 일체를 한다고 믿고 맡기라니까 개별적인 '나', 개별적인 '그 무엇'을 연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로써 이미 전체를 의미합니다. 일체 법을 감싸고 일체 법을 지탱하며 일체 법을 굴리는 도리를 주인공이라 하는 것이니 어찌 네 주인공, 내 주인공 하는 나눔이 있겠습니까?

본래로 한 물건도 없다 했으니 주인공 또한 이름일뿐 공(空)이라 하겠으나 그것을 문제삼지 마세요. 참으로 알 것을 알아야 그 아는 것을 버릴 수 있고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무아의 도리, 공의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발견코자 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말로 하자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무'했던 것입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시거든 '주인공은 내 육신과 마음 내는 것과 불성을 다 싸잡은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바퀴와 바퀴살과 중심축이 하나로 돌아가지 따로따로 돌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것을 주인공, 빌 공(空)자 주인공이라 한 것입니다. 고로 '주인공 당신만이…'할 때는 이미 전체가 궁그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염려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불자들이 밖으로 대상을 지어놓고 그 대상에 빌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불법공부가 마음공부이지 바깥대상(우상)에 의지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바깥 대상을 세워 놓으면 벌써 둘이 됩니다.

그래서 안으로 찾아라, 주인공 자리에 놓아라 하는 것인데 안과 밖을 구분해서 규정짓는 말이 아니라 안팎이 따로 없으니 대상을 향해 돌로 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나와 너, 주체와 객체로 나눠보던 습때문에 둘 아닌 도리가 가물가물 하겠지요. 그래서 주인공! 하여 하나로 싸잡으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집착이 너무 강해요

문 제 나름으로는 불법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나'라는 집착에 빠져서 헤매이게 됩니다. 경전에 보면 아상(我相)을 버려야 한다고 되어있고 스님께서도 늘 '네가 죽어야 너를 본다' 하시는데 자존심이라고 할지, 자애심이라 할지, 하여튼 시시때때로 '나'를 앞세우는 마음이 강하게 고개를 들어서 불법공부가 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근기가 약한 탓일까요.

〈이흥동·광주 동구 금남로〉

답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가상하고 눈물겹습니다. 경전을 보았다니 금강경의 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에 대한 가르침을 아시겠군요. '나'라는 생각에서 빚어진 일체의 상이 녹아내리지 않으면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신통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진이 되어야지요.

근기 탓을 하실건 없습니다. 근기가 약하다는 생각도 누가 하는 생각입니까?

그러한 생각, 또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우선 그것을 알아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라는 집착인줄조차 모른다면 공부를 하고 말고, 되고 안되고를 돌이켜 생각해보지도 못하겠지요.

근기가 약하다고 스스로 규정짓지 마세요.

놓긴 놓아야 겠는데 왜 놓질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걸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자문자답, 아니 마음 속으로 호령을 해보세요.

'이놈아, 그래 네놈이라는 게 뭐라고 놓질 못하냐!'

자기가 주인공도 되었다가 중생도 되었다가 그렇게 둘 아니게 자문자답 해보는 것입니다. 답답한 생각도 딴데서 나오는게 아니라 다 제 속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공부를 방해하는 생각도 다른 곳에서 나와 주고 뺏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화를 해보세요.

예를들면 '야! 이놈봐라' 해도 좋고 '그래 너 참 슬기롭게 잘하는구나' 해도 좋고 '그래 감사하구말구' 해도 좋습니다. 잘하면 쓰다듬어주고 입맞춰 주고 잘못하면 엉덩이 걷어차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왜 어느 스님이 팔죽 쑤면서 방울방울마다 주걱으로 내리치며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했다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서 물리가 터집니다. 샘솟듯이 말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제2회 전국 교정시설 교무과장 연수 법회 및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 대법회 안내

1989년 부처님의 자비, 보시정신으로 교정시설내 수용된 재소자들을 효율적으로 교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가 설립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회에서는 제2회 전국교정시설 교무과장, 교무계장, 불교담당, 불자회장 연수법회와 제산대덕 큰 스님들을 뫼시고 재범률 제로화운동 결의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그들을 위로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10월 일

■일 시:불기 2539(1995) 11월 6~7일
■장 소: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6일 오후6시~8시30분)
■격려사 : 송월주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인우만(법무부 장관)
■주 최: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 (02)813-8842, FAX 812-8841
■후 원:법무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대한불교진흥원,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 한국불교포교사협회, 불교TV, 불교방송, 법무부 갱생보호회 불교협의회, 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그 외 교계 주요 언론사
■동참금:5만원(교화보시금, 만찬)
■은행지로 7615731
한일은행 319-045950-01-001(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외환은행 119-13-08005-1(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조흥은행 394-06-162425(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상업은행 130-05-001140(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우 체 국 012070-0056581(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국민은행 029-01-0855-685(예금주: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농 협 064-01-164453(예금주:한, 불, 선)

※10월 31일까지 참석여부를 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참석못하시더라도 다소나마 보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명 안덕암 대종사
고 문 송월주 박성도 유동산 이법홍 박승용 석일화 우영명 석대산 김대호 문구암 정보성 권태허 천혜안 선각해 김도용 권범호 박운파 전야옹 이동광 이청봉 록 정
대회장 김명윤
지도위원 : 박서봉 전운덕 김락혜 이홍파 김대호 설대운 김법은 김혜정 정혜일 김광태 이태옥 정법륜 정회수 이법덕 김명곡 정회수 안효강 배일공 이대화 윤지명 김법우 신명관 김해곡 정법승 현봉해 소 암 권태순 전홍수 조일형 김무해 최혜초 이혜우 김혜운 석의륜 김동암 박의성 정덕일 전홍수 조일형 설정 현근 정현 지홍 현해 철웅 법장 법성 무공 일타 설조 지관 고산 정관 목산 법조 도영 종열 현고 천운 중원 혜산 월운
봉행위원장 이혜철
부위원장 이기남 최홍주
이 사 남경희 이일광 홍환구 양윤수 임월자 신동회 정 현 최중찬 이한봉 이용모 이선행
지부장 최혜산 박성건 이지홍 전덕분 김화숙 곽태일 박철수 김맹례 송영애 한상호 김혜광 권숙욱 김미영 장명희
자문위원(무순)
강선영 강회찬 곽정출 권익현 권해옥 김동권 김동근 김문기 김영일 김운한 김정수 김진영 김찬우 노인도 박구익 박규식 박우병 박준규 박태준 배명국 서석재 손승덕 손두호 송영진 신재기 유수호 이건영 이순재 장영철 정동호 정재철 정태영 조영장 주양자 최돈웅 허재홍 황윤기 권오태 강경식 강보성 곽정현 고세진 고재청 고원준 김근수 김노식 김병수 김 식 김양배 김영생 김 집 김진기 김태호 김정길 김홍만 박경석 박권흠 박유재 박익주 박지원 박현태 배명인 손주환 손태곤 백찬기 선민선 안영기 양재항 연제원 염길정 윤길중 이강희 이기삼 이규호 이상민 이용택 이중회 이철승 임인규 진병우 진종천 진용원 정시봉 조강목 조기상 조상대 조용지 조일제 조중익 조만후 진치범 최명헌 최영덕 최재구 함종한 황 설 황성균 황대봉 황병우 박희태 한정섭 송영길 목정배 신영순 하문수 권오현 강성호 김시영 김주량 최문영 안규준 성순경 구자순 남강수 명국환 진송남
추진위원장 정성도
부위원장 : 서철화 서무공 류혜준 석법정 박강봉 김무찰 김해동 김일남 홍숙희
추진위원 : 세웅 원산 혜봉 석우 철우 금선 경담 학성 영계 청은 보화 김법은 석혜명 석혜련 이고히 손가산 석혜득 석혜춘 정지현 광명행 청정행 백운제 이원명 최성엽 김은애 김묘묵 김해운 이각명 김형민 고진법사
집행위원장 정혜성
부위원장 : 장각성 장사공 노병섭 박운곡 문부성 김성수 박일서 정정순 김용직 정광수
기획분과위원장 : 남월산 부위원장 이혜천 정동식
재무분과위원장 : 김무공 부위원장 장동순 손종안
의전분과위원장 : 박만화 부위원장 강혜일 손상묵
심의분과위원장 : 이법해 부위원장 주형근 이정희
홍보분과위원장 : 심만춘 부위원장 남궁상 빈태봉 김묘주 김운호
동원분과위원장 : 혜 각 부위원장 김세웅 손안식
설비분과위원장 : 일 도 부위원장 허 운 이광남
경호분과위원장 : 장운혁 부위원장 임 은 손북수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후원회원
한국불교 포교사협회 회원, 동작구 불교연합회 회원
그외 전국 각 사암주지, 불교단체 대표 등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회장 이 혜 철 합장